

로봇산업 선도 첨단기업 눈도장... 메타모빌리티 트렌드 주도



PnD·DnL모듈 세계적 관심 집중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업 본궤도
1~2년 내 구체적 프로젝트 운락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틱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전세계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업으로 거듭났다. 로봇틱스랩 육성뿐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하며 '메타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어냈다.

일각에서는 '괴짜 기업'이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에 제대로 협력할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마크 레이버트 회장이 직접 CES2022 발표에 동참하고 현대차그룹 로봇틱스랩 현동진 상무와 함께 인터뷰 자리에도 나서며 돈독한 관계를 증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협력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레이버트 회장은 자신있게 양쪽 모두 협업에 열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중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즈음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의 소통과 지원이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사도 전했다.

메타 로봇틱스를 위해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가능성을 열었다. 로봇을 메타버스에 넣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가 중요하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서 현대차 로봇틱스랩 현동진 상무(왼쪽)와 마크 레이버트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장이 로봇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며, 디테일한 명령이 없어도 알아서 작동하는 기술과 누가 작동하는지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는지 등이다. 메타버스에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메타로봇틱스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의 로봇을 작동하는 실용적인 메타버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소개한 PnD와 DnL모듈은 현대차 로봇틱스랩에서 만든 작품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협력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협력을 늘리겠다고 현동진 로봇틱스랩 상무는 말했다.

현 상무가 주도하는 로봇틱스랩은 2018년 정의선 회장이 만든 로봇틱스 기술 개발 조직이다. 여러 기술이 로봇틱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결합하고 인류의 삶을 이루는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현 상무는 "로봇은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고도

화하고 정교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입혀서 새로운 사업의 모델이 되는 씨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고객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이를 '로봇 인텔리전트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고 있다. 현대차 로봇틱스랩은 이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했다.

모베드 양산 시점은 2년 정도로 봤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 단계지만, 내구성과 안전, 규제 등과 관련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상황과 고객 니즈 등도 중요한 요소로 로봇틱스 모듈 양산 시점을 확정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신 로봇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레이버트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다. 스팟이 이미 스팟에 센서를 달아 척박한 환경에 보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픈 플랫폼 형태로 필요에 따라 장치를 달아 공급하는 사례도 12~15개 고객이나 확보했다는 것.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니즈

도 있다고 언급했다.

레이버트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3종을 '오늘'과 '내일', '미래'라고 부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스팟이 이미 실제 현장에 사용되고 있고,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스트레치가 내년 대량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는 미래에 전천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간형 로봇이 진짜 필요한지는 비판에 대해서도 레이버트 회장은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아틀라스에 대한 반응으로 짐작했을 때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에 긍정적이라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고 우호적으로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 현 상무도 로봇이 결국은 인간에게 배워야 하는 만큼, 학습 용이성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 상무는 규제나 법규가 장애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하기도 한다며, 현대차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로봇 산업에서도 안전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버트 회장도 로봇이 새로운 산업이라 아직 규제가 없는 것뿐이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미국 내 대관 담당 직원을 뽑는 채용을 통해 미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노력을 소개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PnD모듈 플랫폼



모베드



/현대자동차그룹

디지털 치료제... 전기차 완속 충전기... 반려동물 AI 진단

韓 벤처기업·스타트업 74개사 혁신상

404개사 선정... 韓기업 89개사
디지털 건강·S/W·AI 분야 두각

지난주 막을 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 우리나라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혁신상을 휩쓸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CES 2022'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74곳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의 최고 영예로도 꼽힌다.

올해 CES 혁신상에는 지능형 가전 가구, 모바일 기기 등 27개 부문에서 전세계적으로 404개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89개사였고 이 중 83%인 74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었다.

중기부가 마련한 'K-창업기업관' 참여기업만해도 히포티앤씨(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 및 디지털 치료제), 에바(전기차 완속 충전기 'Smart EV Charger'), 택트레이서(창고재고관리 자동화 시스템 '스파이더-Go'), 에이아이포켓(반려동물 질환 AI 진단기술 및 토털 건강케어 앱 '톡톡케어'), 링크



CES2022 코웨이 부스

페이스(귀 건강을 위한 귀안 환경 관리 '디어버즈'), 렉스랩(저주파 진동을 활용한 피트니스 매트 'Sonicfit')이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TA는 이번 CES 2022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 분야로 ▲건강관리용 착용 가능(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 기술 등 디지털 건강(헬스)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 ▲대체에너지, 음식기술(푸드테크) 등 지속가능한 기술 ▲우주 탐사기술, 장거리 통신기술 등 우주기술 4가지를 제시했다.

4가지 분야 중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특히 디지털 건강(헬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총 2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가운데 디

지탈 헬스 분야와 연관이 있는 '건강(Health) & 건강살이(Wellness)' 부문에서 25개 제품(28.7%)이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헬스케어 분야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이어 '소프트웨어(SoftWare) & 모바일 앱(Mobile Apps)' 부문에서 14개 제품(16.1%)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수상 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가 다수로 CES2022에서 AI 분야 한국 벤처·창업기업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기업 60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29개사는 정부의 대표적 지원정책인 '팁스(TIPS)'를 지원받은 기업들로 나타났다.

팁스 참여 기업 중 하나인 펫나우는 내장 마이크로칩 대신 반려견의 코무늬 등록을 통한 식별 앱 '펫나우'로 '소프트웨어(SoftWare) & 모바일 앱(Mobile Apps)'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최고 혁신상은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과 제품에 주는 상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펫나우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최민정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 넘어설 것"

(최태원 SK회장 차녀)

GFT벤처스 공동 행사 참여

최민정(사진) SK하이닉스 팀장이 CES2022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 팀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팔라초 호텔에서 열린 'SK하이닉스-GFT벤처스 이노베이션 나이트' 행사에 참석했다.

최 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딸이다.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인수와 합병(M&A)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SK하이닉스가 벤처캐피탈 GFT벤처스와 함께 주최했다. 투자자와 현지 스타트업 등 기업가 60여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최 팀장은 연단에 서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회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가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벤처캐피탈을 운영 중인 만큼,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M&A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팀장이 글로벌 경영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최태원 회장이 그룹사뿐 아니라 대한상의 회장까지 겸직하며 글로벌 경



영을 확대하는 상황, 최 팀장도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 팀장은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모습으로 재벌가 딸 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중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면서도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했고, 귀국해서는 2014년 해군사관후보생 117기로 입대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 팀장은 군 복무 시절 총무공이 순신함에 탑승하는 합정병과 장교로 발령 받아 고된 군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2015년에는 소말리아 해역 파병까지 다녀왔다. 2016년에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상황장교로 복무하다가 2017년 중위로 전역했다. 재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전역 후인 2018년에는 중국 흥이 투자에 입사해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글로벌 M&A팀에서 1년 가량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9년 8월 SK하이닉스 인트라에 대리리 입사, M&A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김재웅 기자